함평항 건설·항로 준설사업 논란

함평어민 "환경평가 완료… 생존권 차원 절실"

목포환경연합·무안 어민 "생태계 파괴" 반대

함평군이 추진해온 함평항 및 항로 준설사업에 대해 목포 환경연합과 무안군 일부 어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자 함평 어민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2002년 함평군은 함평항 건설 및 항로준설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2005년 입찰공고를 거쳐 A 건설을 선정했다. A 건설은 3개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함평군과 같은해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목포 환경운동연합 등이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며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2008년 1월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거쳐 같은해 8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 1월 29일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에 대해 사업 대상지인 학산리 어민회관에서 최종 보고회를 갖고 현재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 환경운동연합 유영업 조사위원은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항로준설을 위한 모래채취는 여건이 맞지 않다"면서 "함평군이 지금이라도 사업을 변경해 습지를 보존할 사업을 한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학산어촌계 백해신(손불면·50) 어촌계장은 "함평항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어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환영했다"며 "현재 선박의 접안이 어렵고 돌풍이나 태풍시 정박이 어려운 것은 물론 어로작업 편리를 위해라도 어항건설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함평 어민들은 환경적인 조사를 충분하게 검토해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150여 명의 어촌계원들이 서명해 승인한 사업"이라면서 "타 지역민이 어항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함평항은 지방어선의 어업근거지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항로 주변에 퇴적물이 쌓여 수심이 얕고, 접안시설 등 기본시설이 미비해 그동안 어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항 개발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함평항 개발계획은 총사업비 30억여원을 투입돼 호안 264m, 방파제 170m, 매립 7천452㎡, 물양장 1천552㎡, 항로 72만4천819㎡, 부두 8만4천81㎡의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며 민간업체가 8만3천㎡에 대한 항로를 개발하기로 돼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야생화 보러 강진 오세요 강진청림회(회장 이경옥)가 29일 강진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한 '제18회 청자골 야생화 전시회'에 관람객들이 전시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23명의 청림회원들이 1년 동안 손수 가꾼 야생화 150여점을 선보였다. 〈강진청림회 제공〉

우도농악에 빠진 북유럽 대학생들

노르웨이 베스토플란대학생 9년째 영광 찾아 농악 배워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북유럽의 대학생들이 우리의 전통음악과 무예를 배우기 위해 9년째 한국을 찾고 있어 눈길을 끈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노르웨이 브란부(Brandbu)시에 있는 베스토플란(Vestoppland) 대학의 한국무예과 학생들은 2001년부터 9년째 영광군을 찾아 9년째 우도(右道) 농악을 배우고 있다.

서울에서 볼 때 오른쪽인 전남 서해안 지방에서 발달해 이름이 붙은 우도 농악은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돼 법성포 단오제 등에서 매년 공연된다. 베스토플란 대학생들과 영광 우도 농악은 최용(43) 우도 농악 보존회장을 통해 인연이 생겼다.

우리 전통 무예의 일종인 '24반 무예협회'의 부회장을 함께 맡고 있는 최 회장이 베스토플란 대학의 초청을 받아 노르웨이로 건너가 무예를 전수하면서 우도 농악을 함께 선보였던 것.

이후로 이 대학에 만들어진 한국무예과 학생들은 매년 본고장인 한국을 방문해 선무도와 경당 등 우리나라 전통 무예를 수련하고 영광에 들러 우도 농악을 배워 왔다.

올해에도 학생 등 30여 명이 17일 입국해 무예 수련을 마치고 24일부터 영광 우도농악 보존회에서 그동안 노르웨이에서 갈고 닦았던 실력을 점검받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친환경 축산 농가 해남군, 적극 지원

해남군이 무항생제, 유기농 등 친환경 축산농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친환경 깔짚자돈 분양센터,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지붕개폐 시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에 돌입했다.

특히 무항생제 사육자돈 생산과 농가 분양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9억6천여만원을 지원해 친환경 깔짚자돈 분양센터를 설립하고, 지붕개폐시설 설치에 2억7천700만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서 생산된 무항생제 축산물을 유통업체와 연계해 학교급식 등으로 유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 전복·미역 국내 첫 '수산물 지리적 표시'

완도산 전복과 미역·다시마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산물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다.

완도군은 29일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사업을 추진,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에 전복과 미역·다시마의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지난 2005년부터 군정 역점시책으로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완도전복, 완도미역, 완도다시마' 명칭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상표권에 따르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아 다른 지역에서는 완도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완도군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다른 지역 특산물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수입 수산물과 차별화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높아져 수산물 판매촉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완도 김과 완도 넙치 등에 대해서도 지리적 표시 등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상표법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도 완료하기로 했다.

주태호 완도군 해양수산과장은 "단체표장 등록까지 완료되면 완도 전복과 미역·다시마·김·넙치는 타 지역에서 완도 수산물 명칭을 도용할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순천시, 통역 자원봉사 선발 다문화가족 주부 24명 포함

외국어에 능통한 시민이 통역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순천시는 최근 외국어에 능통한 시민 49명을 선발해 31일 명예 통역단 발대식을 갖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영어·일어·중국어·불어·독일어·러시아 등 9개 외국어 능통자들로, 다음달부터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등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특히 통역 자원봉사자 49명에는 국제결혼으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주부 24명이 포함돼 있어 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